

누가 조를 죽게 만들었는가?*

장남수

영미어문학부

(1) Charles Dickens(1812-70)의 *Bleak House*(1851-53)에는 최하층에 속하는 Jo라는 인물이 중요한 비중으로 등장한다. Jo는 하층민의 세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Dickens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밑바닥 인생에 속하는 아이이다. 다시 말해 부모는커녕 일가친척 하나 없고 배운 것도 없는 Jo가 예컨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새삼스레 슬퍼하거나 신경 쓸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Nemo가 묻힌 곳에 자기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후 Woodcourt가 불러주는 주기도문을 따라 하다가 애처롭게 죽는 Jo의 최후를 고발하는 서술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보고자나 국외자의 담담한 톤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많은 독자의 분노와 슬픔을 일깨우는 열변에 가깝다.

Dead, your Majesty. Dead, my lords and gentlemen. Dead, Right Reverends and Wrong Reverends of every order. Dead, men and women, born with Heavenly compassion in your hearts. And dying thus around us every day.¹⁾

문제는 Jo 같은 하층민의 죽음을 놓고 서술자가 어찌서 당시의 왕과 귀족, 신사와 성직자들에게 책임을 따지는 듯한 격앙된 어투를 사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Jo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거나 사회 전체가 책임질 일

* 이 논문은 2000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Charles Dickens, *Bleak House*, ed. Norman Page (Harmondsworth: Penguin, 1971), p. 705. 이하 본문 인용은 이 판에 준하고 인용문 끝에 면수만 병기함.

이 아니라면 서술자의 목소리는 감상적이거나 무례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다.²⁾ 결국, Jo가 죽기까지 상류사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라는 문제가 서술자의 어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본고는 Jo를 죽음으로 인도한 사회 전체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러나 책임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Bleak House*에 제시된 사회가 안개와 진흙에 휩싸여 있는 작품 서두의 목시록적 이미지가 표상하듯 혼돈과 소외의 아득한 심연에 잠겨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세계에서 Miss Flite 같은 인물은 ‘광기’라는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Lady Dedlock의 경우는 Captain Hawdon과의 사랑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나머지 삶은 허깨비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녀의 진실이 결국엔 수치와 비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회이며, 또한 열병에 걸린 Jo를 돌봐주는 Esther의 친절과 동정심이 그녀에게 오히려 열병으로 되돌아오듯이 부정과 무책임에 근거한 사회의 일원인 한 개인적 선의는 그 의미를 상당 정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이다.³⁾

앞의 인용문에서 부랑아이고 뜨내기애 불과한 Jo의 죽음을 여왕이나 귀족 나으리, 그리고 신사 숙녀분들에게 상기시키는 서술자의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앞서--Jo가 두번째로 등장하는 장인 16장에서--최상층에 속하는 Dedlock 가문의 세계와 최하층인 Jo의 세계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며 서술자 자신이 수사적으로 제기했던 질문을 상기시킨다.

2) Kettle은 Jo의 죽음 장면을 감상하는 최상의 방법은 소리 내어 낭송하는 것이며, 혼자 읽을 때는 서둘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낭송을 해보면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Arnold Kettle, "Dickens and the Popular Tradition", *Marxists on Literature: An Anthology*, ed. David Craig (Harmondsworth: Penguin, 1975) p. 223 참조.

3) Q. D. Leavis, "*Bleak House: A Chancery World*", in F. R. and Q. D. Leavis, *Dickens the Novelist* (1970; Harmondsworth: Penguin, 1972), pp. 225-26 참조.

What connexion can there be, between the place in Lincolnshire, the house in town, the Mercury in powder, and the whereabouts of Jo the outlaw with the broom, who had that distant ray of light upon him when he swept the churchyard-step? What connexion can there have been between many people in the innumerable histories of this world, who, from opposite sides of great gulfs, have, nevertheless, been very curiously brought together! (272)

사실, 이 작품 전체는 두 세계의 연관성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역시 이것인바, 이는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부되어 있는 사회 각 부분의 상호연결을 제시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체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해 가는 Dickens의 숨씨를 음미하고 평가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2) *Bleak House*는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의 세계와 Sir Leicester Dedlock 가문의 저택인 Chesney Wold의 세계, 이 두 가지 중심을 지니고 있으며 이 중심들은 Jarndyce 소송사건과 Esther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연결된다. Dickens는 이 작품에서 각기 다른 세계의 연관에 대한 문제를 플롯상의 연결, 전염병 모티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미지의 연속성, 인물들 사이에 갑작스레 밝혀지는 관계, 부자관계의 메타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시하는데, 이 모든 관계의 핵심에는 본고의 ‘주인공’ Jo와 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Tom-all-Alone’s가 자리 잡고 있다.

Jo는 Nemo의 사인(死因)을 검사하는 심리장면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행색이 누더기를 걸친 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진흙을 뒤집어쓰고 있으며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는 상태이다. 이웃에 사는 부인이 죽은 사람과 거리청소부인 Jo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해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나온 Jo이지만, 검시관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으며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Jo의 얘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서 그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Jo가 비록 이 ‘법정’에서는 증언을 거부당했지만 사회 전체의 무책임과 혼란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작품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핵심에 위치하면서⁴⁾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파괴하는 법정의 문제를 우선 살펴보자.

“런던. 미클마스 개정기가 막 끝나고 대법관이 링컨즈 인 홀에 앉아 있다. 무자비한 11월 날씨. 물이 방금 지구 표면에서 빠져나간 듯 거리에는 엄청난 진흙, 40여 피트 남짓한 길이의 메갈로스아우러스가 코끼리만한 도마뱀처럼 홀본 홀 위로 어기적어기적 걸어다니는 모습과 마주친대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 굴뚝에서 내려온 연기는 함박눈 송이만큼이나 큰 검댕의 조각들로 부드럽고 검은 가랑비를 이루고, 태양의 죽음이라는 장례식에 간다고 상상해도 좋을 듯”(49)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처음부터 11월 런던거리의 자욱한 연기와 검댕, 진흙이 합해져서 죽음처럼 정체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⁵⁾ 안개가 부영계 끼어있는 런던과 템즈강의 풍경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그 다음 문단은 연기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형평법원과 대법관을 보여주는 세번째 문단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The raw afternoon is rawest, and the dense fog is densest, and the muddy streets are muddiest, near that leaden-headed old obstruction, appropriate ornament for the threshold of a leaden-headed old corporation: Temple Bar. And hard by Temple Bar, in Lincoln's Inn Hall, at the very heart of the fog, sits the Lord High Chancellor in his High Court of Chancery. (50)

4) *Bleak House*에서 법정이 그 핵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Dickens의 전기작가인 당대의 Forster를 비롯하여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John Forster, *The Life of Charles Dickens vol. II* (1927; London: J. M. Dent & Sons, 1969), p. 114 등 참조.

5) 작품 서두의 여섯 문장에 동원된 이미지리가 작품의 다양한 갈래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Richard D. Altick, “*Bleak House: The Reach of Chapter One*”, *Writers, Readers, and Occasions* (Columbus: Ohio State UP, 1989), pp. 69-94 참조.

서술자는 엄청난 비용과 서류작업으로 소송당사자들의 용기와 희망뿐 아니라 재산마저 탕진시키는 법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법원에 소송하러 오느니 어떠한 잘못이라도 감내하라”(51)고 가르치는 듯하다고 풍자한다. *Bleak House*에서 법원의 잘못에 의해 망가지는 인물 중, Gridley의 경우는 “아주 단순한 사건”(267)이고 그만큼 법원이 지닌 파괴적 속성을 잘 보여준다. Gridley는 모친이 남겨 놓은 부친의 유산 중에서 동생에게 돌아갈 300파운드를 제외한 모든 유산을--유서에 따라--상속받도록 되어 있었다. 동생 몫인 300파운드 중 얼마가 동생의 “숙박과 식사, 그리고 기타 등등”(267)의 비용으로 이미 쓰였는가의 문제만 합의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동생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서 Gridley도 소송에 말려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리하고 부조리한 이 재판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Seventeen people were made defendants to that simple suit! It first came on, after two years. It was then stopped for another two years, while the Master (may his head rot off!) inquired whether I was my father's son--about which, there was no dispute at all with any mortal creature. He then found out, that there were not defendants enough--remember, there were only seventeen as yet!--but that we must have another who had been left out; and must begin all over again. The costs at that time--before the thing was begun!--were three times the legacy. My brother would have given up the legacy, and joyful, to escape more costs. My whole estate, left to me in that will of my father's, has gone in costs. The suit, still undecided, has fallen into rack, and ruin, and despair, with everything else--and here I stand, this day! (267)

Gridley의 유산은 이미 소송비용으로 고갈되었고 그의 인생마저도 소송 사건에 휘말려서 파괴되었지만 끝을 모르는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가 판결의 지연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법정엔 그를 모독죄로 구속하며, 그래서 그는 평생을 실제의 감옥과 소송사건이라는 비유적 ‘감

옥'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세히 살필 계제는 못되지만 간단하게라도 지적해둘 사항은, 법정이 그 힘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데 Gridley의 사례처럼 물리적 강제와 폭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Richard처럼--Jarndyce 소송사건의 결과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Richard는 인생에서 다른 일체의 일을 방기한 채 판결을 기다리는 삶으로 시종한다--법정의 운영원리를 내면화하고 자발적으로 순응시키는 방식을 통해 법정의 힘이 강화되고 유지된다는 점이다.⁶⁾ 법정의 힘은 그것의 상징인 연기와 검댕처럼 은밀하게 심어지고 행사되는 것이다.

Gridley와 Richard 같은 위인이 소송에 매달려 인생을 탕진하는 동안 그 반대로 이익을 얻는 층은 변호사와 같이 법정을 지키는 인물들이다. “영국법의 유일한 대원칙은 그 자체를 사업으로 삼는 것이다”(603)라는 ‘가르침’에 충실한 Vholes가 특별히 사악하거나 탐욕스러운 변호사라곤 할 수 없다. 그는 대부분의 변호사를 대표할 수 있는 평균적인 유형이며 “튼튼 계곡에 있는 아버지와 세 딸들”(605)을 생각하여 언제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위인이다. 하지만 Vholes가 자기 일에 성실할수록 소송의 퇴인--Vholes에게 소송을 맡겼다가 파멸의 길로 빠져드는 인물은 Richard이다--과 주변사람들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서술자는 Vholes를 “식인종”(605)이나 “흡혈귀”(876)에 비유하여 법정이 불러일으키는 혼란과 무질서를 비판한다.

형평법원이 일하는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인지 “형평법원 소송사건의 기념비”(68, 923)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건이 Jarndyce 소송건이다. 이 사건은 소송을 처음 시작한 Tom Jarndyce를 포함하여 수많은 관련당사자들의 죽음을 낳은 채로 그리고 작중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관련된 채로 여전히 진행중인데,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 안에 있던

6) D. A. Miller, “Discipline in Different Voices: Bureaucracy, Police, Family and *Bleak House*”, *The Novel and the Police*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p. 61 참조.

속기사들과 신문기자들이 모두 자리를 피할 정도로 지리하고 혼란스럽다. 수십년 동안 Equity와 Law가 소송사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끝없이 진행되던 사건 자체는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소송비용이 유산 총액을 압도해서 판결의 실익이 없어지자 그냥 종결되는 것으로 끝난다. 엄청난 비용을 소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소송사건이 결론도 없이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법정은 그 자체의 폐쇄된 특권과 절차의 순환공간 속에서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이 기괴함이야말로 작품이 고발하는 영국사회의 핵심에 닿아 있는 것이다.⁷⁾

“죽을 정도의 권태”(56)에 빠져서 나날을 단조롭게 살아가던 Lady Dedlock은 Tulkinghorn이 가져온 Jarndyce 사건의 공술서를 보고--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술서의 필체를 보고--이상할 정도의 흥분을 보이다가 거의 졸도할 지경에 이른다. Lady Dedlock이 비정상적으로 흥분하는 이유를 Tulkinghorn이 ‘조사’하면서부터 이 부인의 과거, 특히 Nemo와의 사이에 낳은 Esther의 출생이 밝혀지고, 다시 Esther를 통해 Jo와 Tom-all-Alone’s가 사회의 상층과 하층을 잇는 중요한 고리로 드러나게 된다. *Bleak House*의 많은 부분이, Nemo와 Lady Dedlock에 관한 비밀을 포함하여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탐정이야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인물들과 사건들 사이의 숨겨진 연관을 밝혀서 Jo의 죽음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잘 뒷받침한다.

Dedlock 부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Tulkinghorn은 공술서를 쓴 사람이 Nemo임을 알아내고 그가 묵고 있는 Krook의 하숙집으로 찾아가지만 Nemo는 이미 죽은 후이다. 한편, 신문을 통해 Jo라는 아이와 Nemo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Lady Dedlock은 하녀 옷으로 위장한 채 Jo를 찾아가서, Nemo 생전의 거처와 죽어서 묻힌 장소 등을 확인한다. Lady Dedlock을 닮은 여인이 Nemo가 묻힌 Tom-all-Alone’s에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Tulkinghorn은 그녀의 하녀인 Hortense와 Jo를 대질시키

7) Kettle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참조할 것. “This sense of the Law as a force in itself, an independent business, self-perpetuating within its own closed circles of privilege and procedure, is basic to the meaning of *Bleak House*.” (232)

고, Nemo의 뒤를 조사한 사람이 바로 Lady Dedlock임을 확신하게 된다. Tulkinghorn은 조사를 계속하여 Nemo의 본명이 Captain Hawdon이며 Lady Dedlock과의 사이에 Esther라는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한다. Lady Dedlock은 감추고 싶은 과거가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직감하고, 남편인 Sir Leicester Dedlock에게 용서를 구하는 쪽지를 남긴 후 집을 떠나지만, 그날 밤 Tulkinghorn이 자기 방에서 살해된 채로 다음날 아침 발견된다. Tulkinghorn의 살해범은 누구인가? Lady Dedlock인가?

여기서 Lady Dedlock의 남편인 Sir Leicester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전형적인 봉건신사인 Sir Leicester는 “세상이 언덕 없이는 굴러갈 수 있어도 데들록 가 없이는 망할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57)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증산층의 성장이나 철도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해 그것을 “수문이 열어 찢혀지고 사회의 뼈대가 뼈격 거리는 것”(456)으로 받아들일 만큼 자기중심적이며 계급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위인이다. 그러나 작가는 Sir Leicester에 대해 그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그는 그 나름으로 명예와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일반의 여론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인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있었고 그 애인과의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자기 부인의 과거를 알게 된 이후에도, 그리고 Tulkinghorn 살해의 유력한 용의자로 Lady Dedlock이 떠오른 이후에도 Sir Leicester가 자기 부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뢰와 사랑은 한결같다.

Tulkinghorn이 살해된 채 발견된 이후, Sir Leicester는 Bucket에게 부탁하여서 자기 부인에게 씌어진 혐의도 벗기고 살인범도 잡고자 한다. 처음에 Bucket은 변호사와 다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자주 목격되었던 George를 의심하지만 George는 범인이 아니다. Lady Dedlock을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많은 단서들이 또한 발견되나 모두 다 가짜 단서에 불과한 것이며, 우여곡절 끝에 진짜 살인범은 Hortense임을 밝혀낸다. Bucket은 이제 Lady Dedlock의 딸인 Esther와 함께 부인의 행방을 찾는

일에 전념한다. Hertfordshire에 있는 벽돌제조공의 집에 갔다가, 방금 전에 두 여인이 길을 떠났는데 Lady Dedlock의 옷을 입은 여인은 북쪽으로, 그리고 벽돌제조공 부인의 옷을 입은 여인은 남쪽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다. 북쪽으로 간 여인을 한참 따라가던 Bucket 일행은 돌이 옷을 바꿔 입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내고 런던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Bucket의 추리는 옳았지만 너무 늦었다. Lady Dedlock이 Captain Hawdon이 묻혀 있는 묘지입구에서 벽돌제조공 부인의 옷을 입은 채 추위와 피곤에 지쳐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최상층에 속하는 Lady Dedlock이 하녀의 옷차림을 한 채 빈민가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빈민가의 묘지 앞에서--그것도 하층민 Jo가 청소하곤 하던 계단에서--숨을 거두는 플롯을 통해 서로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계층간의 은밀한 연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관관계를 더욱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주는 고리가 앞서 지적한 대로 Jo와 Tom-all-Alone's이다. Jo의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사건의 극중기능은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지만, 우선 그는 Nemo의 사인을 밝히는 검시장면에 처음 등장한 이후 작중의 거의 모든 인물들과, 즉 John Jarndyce, Lady Dedlock, Tulkinghorn, Harold Skimpole, Allan Woodcourt, Mr. and Mrs. Snagsby, Esther, Bucket, Captain Hawdon, Chadband 부부, Guster, Guppy, Hortense, Charley,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경관, 벽돌제조공 가족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 상호간의 연결을 확인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형평법원의 소송사건에 연루되어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 관할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Tom-all-Alone's는 Jarndyce 사건의 결론이 지연되는 탓에 황폐화된다. 빈민가의 비참한 환경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든 그 결과는 빈민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사회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사회가 Tom-all-Alone's의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 문제가 사회의 구성구석에 퍼져나가는 무서운 현실을 “피 한방울”, “알갱이 하나”, “유독한 가스” 등의 생생한 이미지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환기시키는 부분이다.

Much mighty speech-making there has been, both in and out of Parliament, concerning Tom, and much wrathful disputation how Tom shall be got right.……there is but one thing perfectly clear, to wit, that Tom only may and can, or shall and will, be reclaimed according to somebody's theory but nobody's practice. And in the hopeful meantime, Tom goes to perdition head foremost in his old determined spirit.

But he has his revenge. Even the winds are his messengers, and they serve him in these hours of darkness. There is not a drop of Tom's corrupted blood but propagates infection and contagion somewhere. It shall pollute, this very night, the choice stream (in which chemists on analysis would find the genuine nobility) of a Norman house, and his Grace shall not be able to say Nay to the infamous alliance. There is not an atom of Tom's slime, not a cubic inch of any pestilential gas in which he lives, not one obscenity or degradation about him, not an ignorance, not a wickedness, not a brutality of his committing, but shall work its retribution, through every order of society, up to the proudest of the proud, and to the highest of the high. Verily, what with tainting, plundering, and spoiling, Tom has his revenge. (683)

위의 인용문은 Tom-all-Alone's를 Tom으로 의인화한 다음, 이 지역에서 시작된 질병이 사회 전체에 전염되는 양상을 Tom의 복수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법이 당대의 독자들에게 특히 생생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까닭은, 대다수의 동시대 사람들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빈민가의 더러운 환경이 전염병을 낳고, 이 치명적인 전염병이 결국은 빈민들뿐 아니라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⁸⁾에 대해 거의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8) 성은애, 『『블리크 하우스』의 전염병 모티프』, 『안과밖』 7(1999), p. 10. Dickens의 전염병 모티프 사용이 Carlyle의 *Past and Present*를 비롯한 일련의 저작들, 콜레라의 창궐이라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공중위생에 대한 당대의 논쟁 등에 빚지고 있는 데에 대한 설명으로는 James M. Brown, *Dickens: Novelist in the Market-Place* (Basingstoke and London: Macmillan, 1982), p. 58 및 성은애 참조.

Tom-all-Alone's라는 빈민가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퍼지듯이 하층민의 질병도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본문에는 Jo의 열병이 선의에서 우러나온 친절과 동정심으로 그를 간호하던 Esther와 Charley에게 전염되어서 결국은 Esther의 얼굴에 흉터를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사회의 모든 부분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Jo 같은 하층민의 죽음이 사회의 특정한 한두 부분의 잘못 때문만은 아님을 전달하는 데 일조한다.

(3) 우리는 이제까지 Jo와 Tom-all-Alone's 등을 통해 작품의 각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래서 Jo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결국 작품의 다양한 세부들 연결짓는 Dickens의 구성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나름의 계산된 결과인 것이다. 작품의 구조가 곧바로 작품의 주제로 연결되는 이러한 면모에 대해 Pam Morris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the structure itself becomes the means of asserting the central social and moral theme: that society is a network of interconnections and that there is a causal chain linking the poor to the rich. Tom-all-Alone's is described as an inferno, but the text makes it [‘it’의 오식인 듯-] quite clear that it is a manmade hell, brought about by political and legal neglect and by class privilege and inequality.⁹⁾ (강조는 원저자)

작품의 세부들 서로 연결짓는 구조가 대조적인 계층의 상호 얽힘과 책임에 대한 주제로 연결된다고 할 때, 작가가 각 부분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플롯 외의 다른 장치들에도 주의를 기울였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다른 장치들’에 대해 살펴보자.

9) Pam Morris, *Bleak House* (Buckingham and Bristol: Open UP, 1991), p. 38.

이와 관계해서 일차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미지의 연속성에 대한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Jo나 Tom-all-Alone's의 전염병은 런던 거리의 보행자들이 “언짱은 기분에 감염”(49)되어 서로를 밀치며 걷고 있다는 첫 문단의 묘사나 형평법원이 “나이든 죄수 중 최고로 치명적”(50)이라는 다섯번째 문단의 묘사에서부터 이미 준비되었던 것이며, 형평법원 주변의 안개와 진흙에 대한 묘사 역시 전염병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1장에서 형평법원을 묘사하던 서술자의 시선은 그 다음 장에서 작품의 또다른 중심인 Dedlock 부부의 Chesney Wold로 향해진다. 2장의 첫 문장은 “It is but a glimpse of the world of fashion that we want on this same miry afternoon”(55)이라는 식으로 시작하며, 이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데 진흙이나 진창과 관계된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가는 법과 진흙, 진창을 연결지어서 사회 각 부분의 상호연결뿐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가능한 삶의 질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판단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인물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관계가 갑자기 밝혀지는 사례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작품의 구성에 대한 의식을 강화한다. Nabokov가 “갑작스런 관계들”¹¹⁾이라고 칭한 것이 그 좋은 예인데, 예컨대 Jo가 세상의 무책임을 ‘증언’하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곳은 George의 사격연습장이다. 그런데 George는 모친인 Mrs. Rouncewell을 통해 Chesney Wold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탐욕스런 Grandfather Smallweed에게는 채무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Chesney Wold의 안주인인 Lady Dedlock이 열렬히 사랑하였던 Captain Hawdon과는 군대에서 상사와 부하로 연결되어 있던

10) 작품의 서로 다른 부분을 이어주는 이미지의 연속성과 관계된 것으로는 이외에도 폭발, 혼돈, 무질서, 더 나아가 혁명적 기운을 연상시키는 Krook의 자연소사 (spontaneous combustion), “공장”(102)이나 “기계바퀴”(605-07)에 비유되는 형평법원의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체계에 ‘감금’되어 있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잡아먹기 위해 노려보는 “무시무시한 맹금”(522)이나 “고양이”(608, 611)와 관계된 이미지들을 꼽을 수 있다.

11) Vladimir Nabokov, “Bleak House”, *Charles Dickens: Critical Assessments vol. III*, ed. Michael Hollington (Mountfield: Helm Information, 1995), p. 184.

관계이다. Esther를 엄한 종교적 율법에 따라 키웠던 Miss Barbary는 Lady Dedlock의 누이임이 밝혀지고 조금 뒤에 가서는 Boythorn이 옛날에 사랑했던 연인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처음에는 숨겨져 있던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점차 밝혀지고 폭로되는 이러한 양상은, 상호 연결 없이 고립돼 있는 사적이고 자족적인 세계에 대한 신화를 비판하고자 하는 Dickens의 생각을 보여준다.

Jo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본고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부자관계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 Dickens의 전략이다.¹²⁾ 작가는 Jo와 같은 하층계급에 대해 “앞을 가리운 황소”(275)라는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의 지도층이 부모와 같은 자세로 하층민의 문제에 접근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Esther의 이야기부터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것으로 입을 수 있다. 그녀는 Lady Dedlock과 Captain Hawdon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임과 동시에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수많은 아이들--Caddy Jellyby, Charley, Jo 등--에게는 대리모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무수한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하고, Esther의 자선과 돌봄 역시 극히 제한된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작가의 판단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 Jo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Esther와 Lady Dedlock 사이의 숨겨진 모녀관계는 계층간의 분리가 허구이며 그 이면에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Bleak House*에 등장하는 Mrs. Jellyby, Skimpole 등의 실제 부모와 형평법원, 귀족가문 같은 비유적인 부모는 한결같이 책임을 방기한 무리들일 따름이다. 결국 Jo는 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집단적으로 살해당하는 셈인데, “고소장, 반대고소

12) 부자관계 메타포를 통해 작품의 상호연결 구조를 밝힌 국내 논문으로는 Keh, Wonbong, “Metaphor of Parenthood: The Theme of Interconnectedness in *Bleak House*”, 『근대영미소설』 6-1(1999): 5-28 참조.

장, 답변서, 재(再)답변서, 명령서, 공술서, 쟁점들, 서기 조회서, 서기 보고서, 산더미 같은 값비싼 년센스”(50)를 동원하여 실제의 일을 회피하는 법정의 문체는 앞에서 이미 살핀 만큼, 여기서는 상류층 사이에 자리 나뉘먹기로 일관하는 정부의 문제, 제도화된 종교나 자선의 문제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Chesney Wold에 모여드는 귀족들과 Sir Leicester 주변을 맴도는 인물들의 주된 대화는 정부와 의회의 자리를 배분하는 일에 대한 것인바, 이들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충실하고 계급적 이익만을 좇으면서도 그것이 국가적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나라가 붕괴된다는 걱정을 하는 때는 Jo 같은 하층민의 굶주림과 빈곤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가 아니고, 같은 계급에 속하는 Volumnia가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이다. 알파벳 철자를 따라 Boodle, Coodle, Doodle부터 Noodle, Poodle, Qoodle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Buffy, Cuffy, Duffy부터 Muffy, Puffy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든 한자리 마련해 주지 못하면 “이 나라는 난파하여 실종되고 산산조각날 것이다”(211)라는 투이다. Coodle경과 Doodle경이 서로 반목하는 탓에 정부가 존재하지 못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619)이 몇 주간 지속되어도 대중들은 태연하다. 대중의 입장에서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첫 철자만 달리한 ‘-oodle’과 ‘-uffy’의 세계가 지속되면서 무책임한 지배층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또한 생활상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 만큼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중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면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고위층의 실태를 작가는 그들이 구사할 법한 어휘와 논리를 통해 그 내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풍자한다.

England has been in a dreadful state for some weeks. Lord Coodle would go out, Sir Thomas Doodle wouldn't come in, and there being nobody in Great Britain (to speak of) except Coodle and Doodle, there has been no Government. ... Still England has been some weeks in the dismal strait of having no pilot (as was well observed by Sir Leicester Dedlock) to weather

the storm; and the marvellous part of the matter is, that England has not appeared to care very much about it, but has gone on eating and drinking and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as the old world did in the days before the flood. But Coodle knew the danger, and Doodle knew the danger, and all their followers and hangers-on had the clearest possible perception of the danger. At last Sir Thomas Doodle has not only condescended to come in, but has done it handsomely, bringing in with them all his nephews, all his male cousins, and all his brothers-in-law. So there is hope for the old ship yet. (619)

이들이 하층민에 대한 책임과 지도를 회피하는 까닭은 자기네 계급과 국민대중을 철저히 분리시켜서 아예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혼돈과 무기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힘 없는 약자를 도와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력으로 종교단체와 자선단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종교인과 자선사업가들의 의식과 행동을 상술할 계제는 못되는 만큼 간단히 정리하기로 하자. 작품에서 Miss Barbary, Mr. Chadband 등이 대표하는 종교의 문제나 Mrs. Jellyby, Mrs. Pardiggle 등이 대표하는 제도적 자선의 문제는 이들이 상대의 처지나 생각을 무시한 채 자선을 “스스로의 지배요구 및 착취욕구”¹³⁾와 혼동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Mrs. Jellyby의 “망원경 박애주의”(82)가 가까이 있는 불쌍한 개인을 돕는 대신 멀리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집단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그녀에게는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개개의 사례를 살필 수 있는 섬세한 마음씨가 없기 때문이며, Jo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다면 어째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지”(274)를 궁금해하는 것도—Blake가 *Songs of Experience*

13) Dennis Walder, *Dickens and Relig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p. 153.

의 “The Chimney Sweeper”, “The Garden of Love” 등의 시편들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부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린 당대의 종교 탓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무질서와 혼돈이 상류계급의 탓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겠다. Dickens의 많은 작품에서 우리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상류사회(Society)가 곧 사회 전체(society)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빈민가인 Tom-all-Alone’s의 전염병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듯이 상류계급인 Chesney Wold 주변의 습한 공기와 정체된 물도 사회 곳곳에 퍼지기 마련인 것이다. 상류계급에서 시작된 문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서 급기야는 문제의 시작과 결과를 구분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송사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그 사건과 한패이고 한패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146)라는 Jarndyce의 고백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울림을 지닐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의 시작과 결과, 원인과 증상이 뒤범벅으로 혼재하는한 개인적인 자선이나 친절만으로 뚜렷한 개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우리가 전반적인 구조나 체계를 문제시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특히 형평법원의 우두머리인 대법관이 개인적으로 권위적이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친절하고 자상한 인물이라는 점, 상류사회의 핵심인 Sir Leicester도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은 인물이라는 점은 결국, Jo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사회의 한두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핵심을 전달한다.¹⁴⁾ Dickens는 후기작으로 올수록 사회 각 부분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는 사회의식의 성장과 비례하여 작품의 부분 부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예술적 성숙의 면모를 보여주며, 그에 따라서 당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상호 얽혀 있는 체계 자체를 의문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4) 사회적 난제의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D. A. Miller가 지적하는 대로--최소한 근대 이후에 와서--개인과 체계, 가정과 사회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여기서는 약하기로 한다.

(4) 본고의 주제인 Jo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는 영문학에서의 주요 작품들이 영국역사에 던지는 물음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Shifra Hochberg는 부자관계의 역전 내지 전도, 여성의 성욕, 사회 전반적인 타락과 부패, Jo의 ‘주거지’에 해당하는 Tom-all-Alone’s와 Tom으로 분장한 Edgar의 음막의 유사성, ‘nothing’ 모티프 등을 예로 들면서 Dickens의 *Bleak House*가 Shakespeare의 *King Lear*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¹⁵⁾ 실제 두 작품에서 공히 재산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지인 Jo와 Tom은 인간보다 짐승에 가까운 존재로 묘사되는데, “상처 입은 동물”(489)에 비유되는 Jo의 상태 내지 의식은 다음과 같다.

It must be a strange state to be like Jo!……It must be a strange state, not merely to be told that I am scarcely human (as in the case of my offering myself for a witness), but to feel it of my own knowledge all my life! To see the horses, dogs, and cattle, go by me, and to know that in ignorance I belong to them, and not to the superior beings in my shape, whose delicacy I offend! Jo’s ideas of a Criminal Trial, or a Judge, or a Bishop, or a Government, or that inestimable jewel to him (if he only knew it) the Constitution, should be strange! His whole material and immaterial life is wonderfully strange; his death, the strangest thing of all. (274)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말이나 개, 소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는 이상한 느낌이 급기야 자신을 둘러싼 온갖 물질적·비물질적 삶이나 죽음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전환’되는 장면이다. 이는 짐승으로 지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Tom의 경우를 묘하게 상기시키는데, Tom으로 분장한 Edgar의 독백은 다음과 같다.

15) Shifra Hochberg, “The Influence of King Lear on Bleak House”, *The Dickensian* 429 (1993): 45-49 참조.

EDGAR I heard myself proclaimed,
 And by the happy hollow of a tree
 Escaped the hunt. ……
 …… Whiles I may 'scape
 I will preserve myself, and am bethought
 To take the basest and most poorest shape
 That ever penury in contempt of man
 Brought near to beast. My face I'll grime with filth,
 Blanket my loins, elf all my hairs in knots,
 And with presented nakedness outface
 The winds and persecutions of the sky.
 (*King Lear* II, iii, 1-12)

*King Lear*의 “불쌍한 톰”(II, iii, 20)이 어디 Edgar뿐이라. Neckett가 죽은 후 고아로 남은 그의 세 아이들--그중 둘째 아이의 이름은 실제로 Tom이다--을 비롯하여 동물 수준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많은 하층민들이 모두 다 “불쌍한 톰”인 것이다. 이들에게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한 것은 무엇인가.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우리는 이 질문이야말로 Shakespeare에서 Dickens에 이르는 영문학의 고전이 자본주의경제에 던지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위대한 작품은 자기 시대에 가능한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¹⁶⁾을 제고한다는 일반론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King Lear*가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넘어가는 역사적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면서 자본제의 비인간성을 예시한다는 점이나 *Bleak House*의 무책임한 사회를 만든 기본원리가 바로 자본주의경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다. 결국, Jo를 죽음으로 내몬 궁극적 책임은 만물을 계산의 대상으로 삼

16) F. R. Leavis, *The Great Tradition* (1948; Harmondsworth: Penguin, 1972), p. 10.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F. R. Leavis가 영소설의 ‘위대한 전통’을 확정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일차적 지표인데, 그는 후에 이 기준을 보완하여 영문학 전체에 적용하고 그 결과 Shakespeare, Blake, Dickens, Lawrence에 이르는 영문학의 창조적 흐름을 강조하게 된다.

아 계량화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자본주의경제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Altick, Richard D. *"Bleak House: The Reach of Chapter One"*. *Writers, Readers, and Occasions*. Columbus: Ohio State UP, 1989.
- Brown, James M. *Dickens: Novelist in the Market-Place*. Basingstoke and London: Macmillan, 1982.
- Dickens, Charles. *Bleak House*. Ed. Norman Page. Harmondsworth: Penguin, 1971.
- Forster, John. *The Life of Charles Dickens vol. II*. 1927; London: J. M. Dent & Sons, 1969.
- Hochberg, Shifra. "The Influence of *King Lear* on *Bleak House*". *The Dickensian* 429 (1993): 45-49.
- Kettle, Arnold. "Dickens and the Popular Tradition". *Marxists on Literature: An Anthology*. Ed. David Craig. Harmondsworth: Penguin, 1975.
- Leavis, F. R. *The Great Tradition*. 1948; Harmondsworth: Penguin, 1972
- and Q. D. Leavis. *Dickens the Novelist*. 1970; Harmondsworth: Penguin, 1972.
- Miller, D. A. "Discipline in Different Voices: Bureaucracy, Police, Family, and *Bleak House*". *The Novel and the Police*.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 Morris, Pam. *Bleak House*. Buckingham and Bristol: Open UP, 1991.
- Nabokov, Vladimir. "*Bleak House*". *Charles Dickens: Critical Assessments vol. III*. Ed. Michael Hollington. Mountfield: Helm Information, 1995.
- Shakespeare, William. *The Tragedy of King Lear*. Ed. Jay L. Halio. Cambridge: Cambridge UP, 1992.
- Walder, Dennis. *Dickens and Relig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 Keh, Wonbong. "Metaphor of Parenthood: The Theme of Interconnectedness in *Bleak House*". 『근대영미소설』 6-1(1999): 5-28.
- 성은애. 『블리크 하우스』의 전염병 모티프. 『안과박』 7(1999): 9-31.

<ABSTRACT>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Jo?

This paper aims to inquire the responsibility following the death of Jo in *Bleak House*. Jo and his 'habitat', Tom-all-Alone's are the critical links connecting the privileged and the under-privileged, the high and the low, so his death comes out to be central to the meaning of this novel, which is related with "class privilege and inequality" and also with the quality of life in this society. The recognition that, contrary to the apparent class distinctions, people cannot be ultimately separated and the so-called 'diseases' in one part of society soon contaminate the whole society comprises the main theme of this work, which is reinforced by the closely organized structure. The close relation of all the parts of this novel shows the writer's growing awareness of the social interconnections, and *vice versa*. If not, we don't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social outcast like Jo. In order to establish connections between parts, Dickens resorts to, besides plot, many methods or motifs. We can enumerate the coherence of images, the mystery techniques, the motif of epidemic and parenthood, and "sudden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s, and what not. In conclusion, it is clear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death of Jo should go to the whole social system, that is, the capitalist economy, not to the particular section. No one in this system is immune from the death of Jo.